

# 최근 10년(1996년~2005년) 간 국내 패션 트렌드의 경향 분석

고 은 주\* · 이 지 현<sup>+</sup>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부교수\* ·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조교수<sup>+</sup>

## An Analysis of the Fashion Trends in Korea over the Last 10 years(1996-2005)

Eunju Ko\* · Jee-Hyun Lee<sup>+</sup>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Yonsei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sup>+</sup>

(투고일: 2008. 3. 4, 심사(수정)일: 2008. 9. 11, 게재 확정일: 2008. 9. 15)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Fashion Trends(1996~2005) of Korea by the trend elements - style, fabric and colo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During 10years, 'modern(18%)', 'elegant(11%)' and 'romantic(10%)' styles were shown in order, and colors of YR(17%), Y(14%), R(13%) and PB(11%) were shown in order. Considering tones, m(16%), d(12%), gy(11%) and s(10%) tones were in the order of frequency. In the fabric trend 'elegant(19%)', 'modern(14%)' and 'natural(14%)' images showed the high frequency. Since 2000's, style trends and fabric trends were subdivided, and the contrary images coexisted. The trend images of 'natural', 'retro', 'manish' and 'fun' were mainly used in fabric trend, and 'romantic' and 'classic' images were frequently used in style trend. The changes of trend images in style and fabric have been similar until the early 2000's but the cycle of trend of style became shorter than fabric trend. Therefore the cycle of fabric trend should be changed to be a short term and subdivided in company with style trend.

Key words: fashion trend(패션 트렌드), style trend(스타일 트렌드), fabric trend(소재 트렌드), color trend(컬러 트렌드)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 2005-531-C00111)

Corresponding author: Jee-Hyun Lee, e-mail: EZ2@yonsei.ac.kr

## I. 서론

패션은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를 반영하는 속성을 갖는다. 특히 개인화, 다원화를 특성으로 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이해하고 그 흐름을 예측하는 현대 패션산업은 패션 전문가의 경험이나 직관 못지않게 객관적이며 충분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199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정보화 사회의 특성은 패션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패션 트렌드 영역에서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한 트렌드 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패션 트렌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패션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이들의 흐름을 예측, 가시화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해당 마켓에서 수용 가능한 총체적 패션 디자인의 경향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패션 정보회사를 통해 시즌마다 발표되며 패션 기업들은 의류 상품 기획을 위하여 각종 트렌드 자료를 선별적으로 수용, 상품 기획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패션 기업들이 상품기획에 사용하는 트렌드 정보의 내용은 크게 1차 정보인 해외 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제너럴 트렌드(General Trend)와 이를 바탕으로 국내 트렌드 정보사에서 국내 시장에 맞도록 분석, 가공한 2차 정보인 국내 패션 트렌드, 해외 전시회 및 시장조사 자료 등 기업이 직접 수집한 3차 정보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2차 정보인 국내 패션 트렌드는 국내 트렌드 정보사가 국내 마켓 실정을 반영하여 제너럴 트렌드를 재해석한 2차 정보로서 의류 기업들이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고 마켓의 방향을 예측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정보로 현재 상품 기획의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 국내 패션업체에서 제공 받는 트렌드 정보는 해외 제너럴 트렌드를 바탕으로 한 최신 트렌드 정보에 치중되어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내 패션산업의 특성에 따른 트렌드 정보의 누적된 변화 특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또한 패션 트렌드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소영, 양희영(2006)<sup>1)</sup>, 금기숙, 남재경(2001)<sup>2)</sup>, 김숙현(2001)<sup>3)</sup>, 김윤경, 이경희(2004)<sup>4)</sup>, 김찬주(2003)<sup>5)</sup>

등과 같이 소비자의 트렌드 수용 태도와 그에 따른 트렌드의 응용에 한정되어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트렌드 분석 기간도 단기 중심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패션 트렌드의 흐름을 분석하는 연구는 미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패션산업에 체계화된 트렌드 정보가 적극 활용되기 시작한 최근 10년간(1996~2005)의 패션 트렌드를 중심으로 국내 패션 트렌드의 장기적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국내 패션업체의 디자인 기획 시 유용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패션산업 및 트렌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패션 트렌드의 구성요소

패션 기획을 위해 제공되는 패션 트렌드 정보는 시장 정보, 색채 정보, 소재 정보, 스타일 정보, 디테일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기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가시적인 기획 결과와 직결되는 트렌드 정보는 스타일, 색채, 소재 정보이다. 이 중 패션 스타일이란 의복의 특징적인 형태로서 다른 스타일과 식별할 수 있는 라인, 프로포션<sup>6)</sup>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혹은 서로 결충된 형태의 착장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소비자 유형에 따른 패션 스타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소비자의 착장 스타일을 살펴본 연구(노경혜, 이경희, 2002; 김찬주, 2003)와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패션 스타일을 분석한 연구(김윤경, 이경희, 2004; 박효은, 유영선, 이신희, 2004), 잡지 광고에 표현된 패션스타일을 분석한 연구(이은숙, 김새봄, 2005), 문화 코드 변화에 따른 패션 스타일 경향 연구(김소영, 양희영, 2006; 최지영, 간호섭, 2003), 특정 패션 스타일의 미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고현진, 2005; 최호정, 하지수, 2005)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패션 스타일

〈표 1〉 패션 스타일에 관한 선행연구 및 대표적 패션 스타일

연구자	선행연구에 나타난 대표적 패션 스타일
금기숙, 남재경 (2001) <sup>7)</sup>	에스닉, 로맨틱, 엘레강스, 소피스티케이트, 모던, 매니쉬, 액티브, 내추럴
노경혜, 이경희 (2002) <sup>8)</sup>	로맨틱, 에스닉, 스포티브, 머스큘린-페미닌, 쉬크, 글래머, 미스 앤 매치, 걸리쉬, 트래디셔널, 레트로
김윤경, 이경희 (2004) <sup>9)</sup>	엘레건트, 액티브, 내추럴, 클래식, 로맨틱, 에스닉, 밀리터리, 마린, 콜로니얼, 아방가르드
김소영, 양희영 (2006) <sup>10)</sup>	쉬크, 섹시, 보헤미안, 차브, 에스닉

〈표 2〉 패션 소재 감성 이미지에 관한 선행연구와 대표적 감성 이미지어

연구자	선행연구에 나타난 대표적 패션 소재 이미지어
조현승, 이주현 (2005)	모던한, 편, 내추럴한, 엘레강스한, 클래식한, 에스닉한, 야성적인, 스포티한
고수경, 유신정, 김은애 (2003)	클래식, 엘레강스, 따뜻함, 내추럴, 캐주얼
이윤숙, 신정원, 안미영, 김은애 (2001)	내추럴, 이노센트, 로맨틱, 에스닉, 차일디쉬, 캐주얼, 클래식, 모던, 테크니컬
나영주, 권오경 (2000) <sup>11)</sup>	컨트리, 소피스티케이트, 엘레강스, 스포티, 로맨틱, 매니쉬, 컨저버티브, 컨템포러리

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색채는 패션상품 기획 시 스타일, 소재, 디테일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로, 패션 분야에서는 착용자의 개성, 기호, 심미안, 문화적인 특성 등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의복 구매 기준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패션 분야에서 색채는 타 산업에 비해 계절의 구분이 뚜렷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유행의 속성이 매 시즌 색채에 의해 잘 반영됨으로써 성공적인 색채기획은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차별화하는데 용이하다. 패션 트렌드에서 제공되는 색채 정보는 색채 이미지어 외에도 COS나 Pantone과 같은 활용색표집의 색 값으로 표기된다. 국내 패션업계도 색채기획 시 주로 색표집을 활용하는데 많은 업체가 Pantone을 기본 색표집을 사용하고 있고 주로 활용하는 색상과 색조별로 분류, 선정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다.<sup>12)</sup>

소재는 다른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반적인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로 촉감으로 느껴지는 질감 이미지와 시감으로 느껴지는 질감 이미지의 연상작용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패션 트렌드에서 소재 정보는 직물의 혼용율, 가공 및 후처리방법 외에 소재의 이미지에 따른 감성적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패션 소재의 물성에 따른 감성

적 이미지의 관계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조현승, 이주현<sup>13)</sup>, 2005; 이윤숙 외<sup>14)</sup>, 2001; 고수경 외<sup>15)</sup>, 2003) 등이 있으며 이들 연구에서 나타난 대표적 감성 이미지어를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10년(1996~2005년)간의 국내 패션 트렌드를 스타일, 색채, 소재 별, 년도 별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국내 패션 트렌드의 특성을 파악하여, 미래 패션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국내 트렌드 정보를 수집하였다. 트렌드 데이터는 영향력 있는 패션 트렌드 정보사인 인터패션플래닝(Interfashion Planning)<sup>16)</sup>, 삼성 디자인넷(design net)의 자료<sup>17)</sup>, 패션전문 잡지인 섬유저널(現 패션 비즈)<sup>18)</sup><sup>19)</sup><sup>20)</sup><sup>21)</sup><sup>22)</sup>, 패션 코리아<sup>23)</sup>, 한국 패션섬유경제신문<sup>24)</sup>에서 시즌 트렌드 정보관련 기사 자료를 정리, 수집하였다. 수집된 총 데이터는 1576 개로 스타일 데이터 686개, 소재 데이터 146개, 색채 데이터 606개였으며 년도 별로 1996년 178개, 1997년

\* 2000년 자료는 섬유저널, 패션코리아, 한국패션섬유경제신문에서 수집된 자료만을 기반으로 하였음.

〈표 3〉 패션 트렌드 요소별 분석 기준표

요소	분류 기준	갯수	참고자료
스타일	에스닉, 로맨틱, 엘레강스, 모던, 액티브, 내추럴, 스포티브, 쉬크, 글래머, 보헤미안, 클래식, 레트로, 캐주얼, 편, 테크노, 걸리쉬, 매니쉬	17개	남재경 외(2001) 노경혜 외(2002) 김윤경 외(2004) 김소영 외(2006)
색채	색상: R, YR, Y, GY, G, BG, B, PB, P, RP, N 색조: v, s, brill, vl, l, vp, p, gy, m, dp, d, d.gy, w(white), l.Gy(light gray), med.Gy(medium gray), d.Gy(dark gray), Bl(black)	11개 17개	Munsell색체계 ISCC-NBS 톤분류
소재	모던, 편, 내추럴, 엘레강스, 로맨틱, 클래식, 에스닉, 야성적인, 스포티브, 따뜻함, 캐주얼, 매니쉬, 레트로*, 테크니컬, 센슈얼* (*는 선행 연구자료 외 추가된 이미지이)	15개	조현승 외(2005) 고수경 외(2003) 나영주 외(2000) 이윤숙 외(2001)

185개, 1998년 220개, 1999년 270개, 2000년 59개\*, 2001년 158개, 2002년 111개, 2003년 115개, 2004년 137개, 2005년 143개였다.

수집된 데이터 중 스타일과 소재는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정리된 대표 감성어회로 분류되었고, 색채는 면шел 10색상을 기준으로 한 색상, ISCC-NBS의 색조기준에 따라 분류되었다. 대표 감성어회는 선행 연구자료 및 선행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트렌드 정보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 감성 어휘를 추가로 포함시켰으며 수집된 색채 데이터는 한국산업규격(KSA0011)에 따른 색 값 전환 프로그램인 디지털 색채팔레트(한국디자인진흥원, [www.designdb.com/color/color.asp](http://www.designdb.com/color/color.asp))를 이용하여 색상과 색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감성어회 및 분류 기준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 IV. 결과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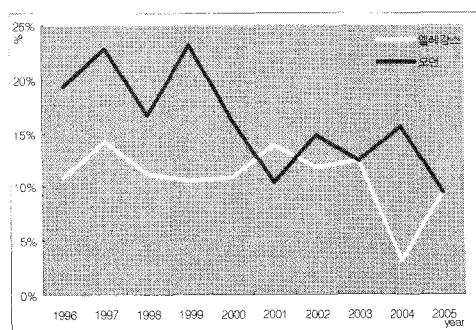
##### 1. 패션 스타일 트렌드 분석

최근 10년 동안의 패션 스타일을 분석해 본 결과 모던(18%), 엘레강스(11%), 로맨틱(10%), 캐주얼·에스닉·내추럴·레트로(7%), 스포티브·테크노(6%)의 스타일의 순서로 나타나 현대 패션 스타일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모던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모던 스타일의 변화를 년도 별로 비교해 보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1997, 1999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 엘레강스 스타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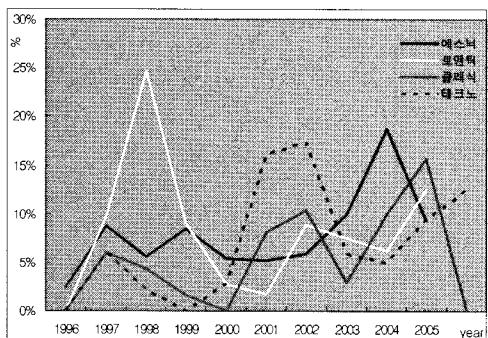
1996년부터 2003년까지 꾸준히 나타나다가 모던 스타일이 강세였던 2004년 큰 폭으로 감소한 후 2005년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1). 최근 들어 빈도가 높아지는 테마인 테크노 스타일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뉴밀레니엄의 도래와 함께 신소재의 개발 및 사용, 미래적 이미지의 표현 추세 등의 영향으로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04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그림 2).

연도별로 특징적으로 나타난 패션 스타일을 보면, 로맨틱 스타일이 꾸준히 지속되다가 1999년 사라진 것을 살펴볼 수 있으며, 내추럴 스타일이 2004년 사라진 것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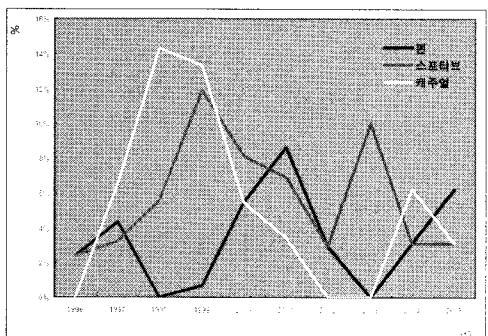
90년 중반을 풍미했던 로맨틱스타일, 한국시장의 '공주패션'은 90년대 후반 아시아를 강타했던 외환위기와 함께 사라지고 보다 실용적인 스타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즉 2000년 이후부터 스포티브 스타일



〈그림 1〉 모던, 엘레강스 스타일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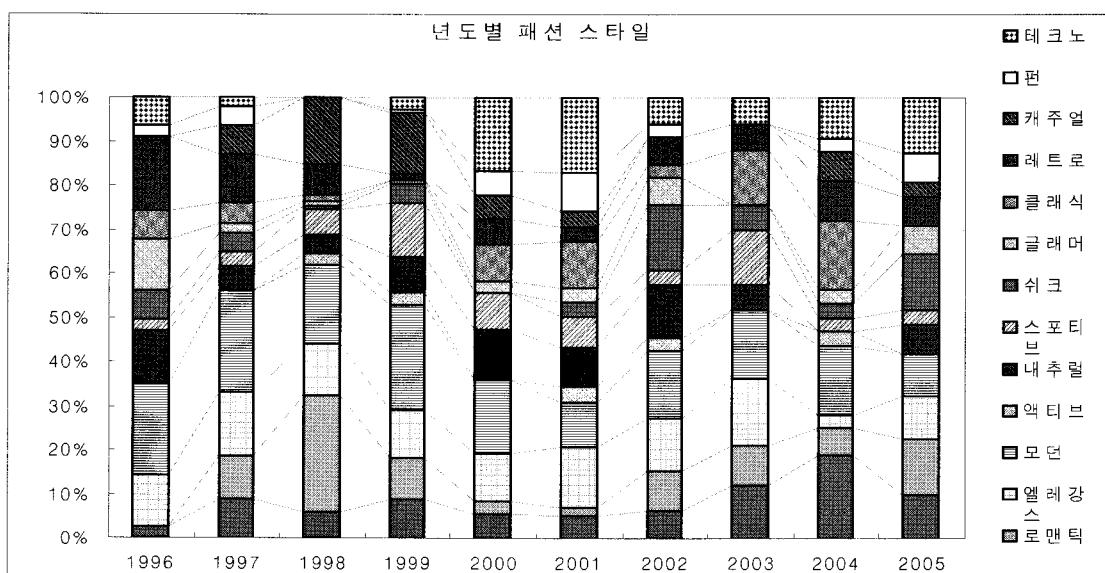


〈그림 2〉 에스nek, 로맨틱, 클래식,  
테크노스타일분포도



〈그림 3〉 편, 스포티브, 캐주얼 스타일 분포도

이 꾸준히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함께 캐주얼과 액티브 스타일이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6년부터 1998년 사이 등장하던 쉬크 스타일이 2002년과 2005년에 두드러지게 부각된 것을 살펴 볼 수 있으며, 1999년부터 2001년 사이 나타난 클래식 스타일은 2002년 잠시 감소하였다가 2003년과 2004년에 다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2003년에는 보헤미안 스타일이, 2004년에는 매니쉬 스타일이 비중 있게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주얼과 스포티브 스타일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진 테마로 편 스타일이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이들이 상호 보완적인 이미지를 공유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또한 클래식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소비의 양극화, 패션의 고급화 경향과 함께 특징을 보이며 증가하였고, 이와 반대 이미지인 테크노 역시 2000년 이후 증가 하며 년도 별로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그림 2, 3). 이는 상반된 패션 이미지의 공존이라는 현대사회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1990년대 보다 2000년대 오면서 테마가 더욱 세분화되고 있고 특히 상반된 테마가 서로 공존하는 다원적인 특성을 보이



〈그림 4〉 년도 별 패션스타일 변화 추이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패션 스타일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연도에 나타난 모든 스타일의 총합을 100%로 본 후 각 스타일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 2. 패션 색채 트렌드 분석

### 1) 색상 트렌드분석

최근 10년 동안의 패션 색채를 분석하기 위해 각 테마에 제시된 색 샘플 총 435개를 수집, 분석한 결과, 유채색은 총 392개(90%)로 나타났으며, 무채색은 총 43개(10%)로 나타났다. 색상 빈도를 분석한 결과 면설 10색상기준으로 YR(17%), Y(14%), R(13%), PB(1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적게 나타난 색상은 BG(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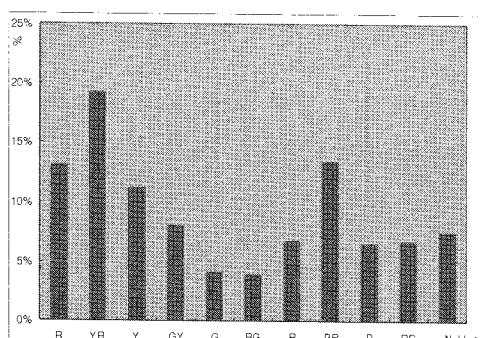
색상 별 연도에 따른 변화를 비교해 보면 YR, R 계열의 색상은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Y색상의 경우 90년대 후반 대소 감소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추럴 스타일과 새로운 세기의 시작과 함께 패션 트렌드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테크노 스타일의 골드 이미지와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채색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G, BG색상의 경우 애콜로지, 로하

스 등의 친환경적 트렌드 지속과 함께 그 비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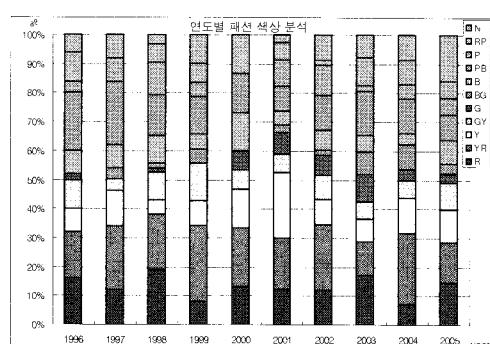
### 2) 색조 트렌드분석

최근 10년 동안의 패션 트렌드의 색조를 분석해본 결과 m(16%)>d(12%)>gy(11%)>s(10%)>l(9%)의 빈도로 나타났다<그림 7>. s, m색조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약간의 증감은 있으나 꾸준히 큰 비중을 차지하며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d 색조는 1998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나타났으나 1996년, 1999년, 2002년에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후 2003년 잠시 감소하였다가 2004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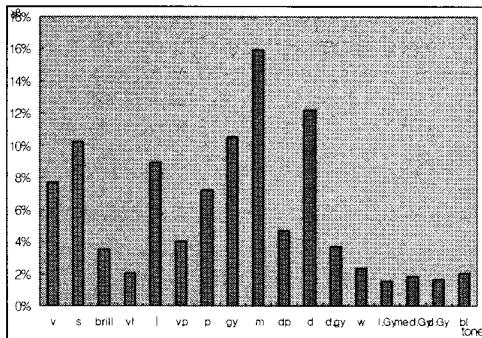
연도별로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패션 색조를 정리해보면, 1996년에는 무채색 계열 W(40%), d.Gy(20%), Bl(20%)이 많이 나타났으며, 1997년부터 2000년까지 p색조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2000년에는 l, 2001년에는 v색조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dp색조가 꾸준히 증가한 경향이 있다. 2000년대에는 1990년대에 비해 gy, dp, d.Gy, vp계열의 색조 등 저채도의 다양한 명도의 색채가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패션 스타일 중 모던, 엘레강스 스타일의 지속적인 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00, 2001년 증가되었던 v색조는 그 당시 증가되었던 편 스타일 트렌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패션 색조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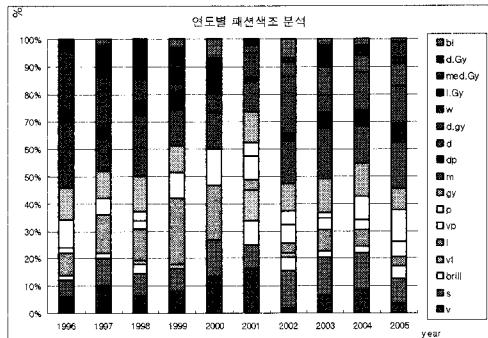
<그림 5> 최근 10년간 색상 트렌드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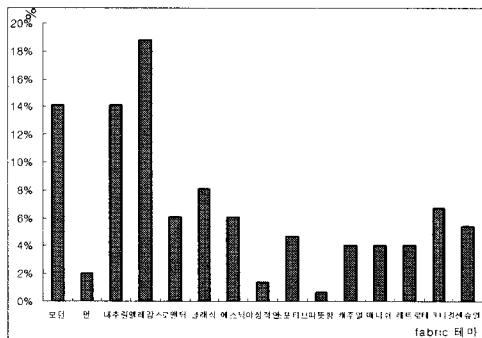
<그림 6> 연도 별 색상 트렌드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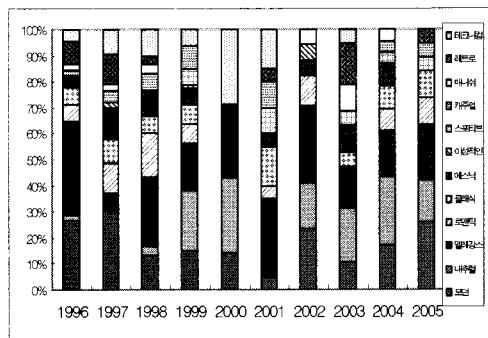
〈그림 7〉 최근 10년간 색조 트렌드 분포도



〈그림 8〉 연도 별 색조 트렌드 변화 추이



〈그림 9〉 최근 10년간 소재 이미지 분포도



〈그림 10〉 연도 별 소재 트렌드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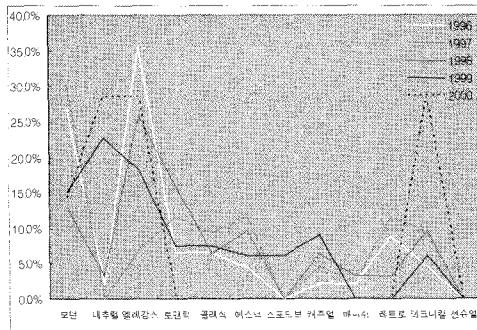
도에 나타난 모든 색조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그림 8〉과 같다.

### 3. 패션 소재 트렌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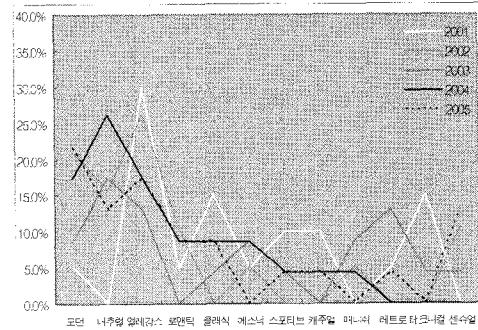
최근 10년 동안의 패션 소재를 분석해 본 결과, 빈도가 높은 감성 이미지는 엘레강스(19%)로, 내추럴(14%) 클래식(8%)의 순서로 나타났다(그림 9). 모던한 소재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나타났으나, 2001년, 2003년 큰 폭으로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내추럴한 소재는 1999년 이후 2000년대에는 서서히 그 비중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엘레강스 소재는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모던, 내추럴 소재와 더불어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난 트렌드 소재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1996년부터 2001년 사이에 테크노 스타일 트렌드와 함께 테크니컬 소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 이후로는 스포티브와 캐주얼 이미지 소재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그림 10).

연도별 특징적으로 나타난 패션 소재의 감성 이미지를 정리해보면, 1997년, 2003년에는 대표적인 감성 이미지의 소재와 더불어 레트로 감성의 소재가, 1999년에는 야성적인 감성 이미지의 소재가 함께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엘레강스 소재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내추럴 소재가, 2005년에는 모던 소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의 소재 트렌드의 움직임을 비교해 보면 90년대 중반에는 엘레강스, 모던 이미지의 비중이 매우 커으나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99년부터 내추럴 소재, 캐주얼 소재 등이 증가하며 다양한 소재 감성이 공존해가는 특성을 보여



〈그림 11〉 95~00년 소재 트렌드 경향



〈그림 12〉 01~05년 소재 트렌드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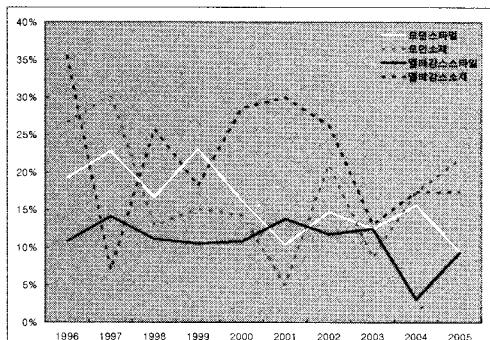
준다(그림 11). 이 중 캐주얼 소재는 90년 후반에 있었던 한국의 외환위기라는 사회적 현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내추럴 소재의 증가는 9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에콜로지 컨셉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의 소재 트렌드는 내추럴 소재, 모던 소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엘레강스, 테크니컬 소재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2). 이는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함께 에콜로지 테마가 유지되고 있는 현상과 관계가 있다. 또한 테크니컬 소재의 감소 추세는 소재의 기능성이 덜 중요해졌다는 의미보다는 테크니컬 소재의 경우 기능적 특성을 내추럴 소재 안으로 숨겨 외관 이미지에 테크니컬 한 특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의 발전과 디자인 트렌드의 변화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트렌드 요소 간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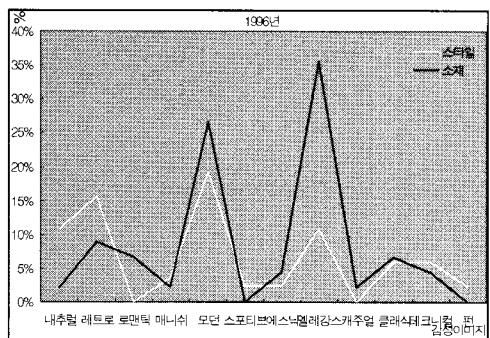
패션 트렌드 요소 중 감성 이미지로 분류되어 상호 비교 가능한 스타일과 소재를 교차비교해보면 12개(내추럴, 레트로, 로맨틱, 매니쉬, 모던, 스포티브, 에스닉, 엘레강스, 캐주얼, 클래식, 테크노, 편)의 감성 이미지를 공유한다. 이 중 스타일과 소재 이미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던, 엘레강스의 년도 별 노출 빈도를 비교해 보면 아래의 〈그림 13〉과 같다. 모던 이미지의 경우 스타일과 소재의 빈도가 유사한 경향

을 보였으나, 엘레강스 감성의 경우 스타일과 소재 경향에서 부적인 관계를 읊보이고 있다. 즉 트렌드 정보 중 소재 정보에서는 엘레강스 소재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스타일 정보에서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내추럴 감성의 경우도 스타일 정보와 소재 정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소재 정보에서 1999, 2000, 2004년도에 특징적으로 많은 출현빈도를 보였으나 스타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출현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도에 들어 내추럴 스타일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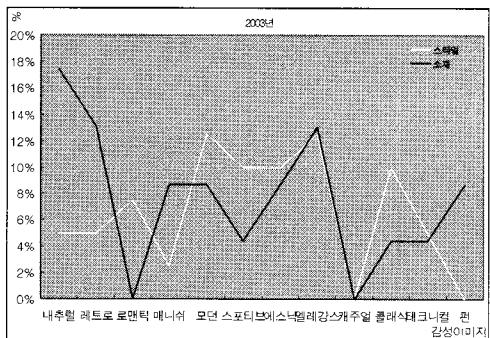
소재와 스타일 감성이 이미지의 유사성을 년도 별로 보면 90년대 중반에서 2001년 까지는 각 감성이 이미지 별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2003년 이후에는 스타일과 소재트렌드의 감성 이미지에 많은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그림 14, 15). 즉,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모던, 엘레강스 감성을 제외하고 내추럴, 레트로, 매니쉬, 편의 감성은 소재를 중심으로 강조되었으며, 로맨틱과 클래식 감성은 스타일을 중심으로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재에 의해 강조되는 패션테마와 스타일에 의해 강조되는 패션테마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스타일에 의해 패션테마가 보다 세분화되는 현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 패션이 감성의 세분화, 이미지 중심의 디자인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패션 소재트렌드 정보의 경우 감성 세분화에 따른 다양한 소재트렌드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 모던, 엘레강스 스타일, 소재 경향



〈그림 14〉 96년 스타일, 소재 트렌드 감성이미지



〈그림 15〉 03년 스타일, 소재 트렌드 감성이미지

## V. 결론 및 제언

최근 10년(1996~2005년)간의 패션 트렌드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패션 트렌드 자료를 패션 스타일, 색채, 소재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10년 동안의 패션 스타일을 분석해 본 결과 모던(18%), 엘레강스(11%), 로맨틱(10%), 캐주얼·

에스닉·내추럴·레트로(7%), 스포티브·테크노(6%)의 스타일의 순서로 나타났다. 모던, 엘레강스는 90년 이후 2000년 중반까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트렌드로 로맨틱 스타일은 90년대 이후 감소되었다. 이는 90년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 등 경제적 위축과 함께 나타난 현상으로 90년 후반 캐주얼 트렌드의 확대와 연계되는 현상이다. 2000년 이후부터 스포티브 스타일이 꾸준히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함께 캐주얼과 액티브 스타일이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진 스타일은 편 스타일이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들이 상호 보완적 이미지를 공유하기 때문에 동시에 출현하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6년부터 1998년 사이 등장한 쉬크 스타일이 소비의 고급화 현상과 맞물려 2002년과 2005년에 두드러지게 부각되었고 2000년 초반 감소되었던 클래식 스타일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클래식과 상반되는 이미지인 테크노 스타일은 밀레니엄을 맞아 2000년 이후 증가 하며 클래식과 함께 넌도 별로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상반된 패션 이미지의 공존이라는 현대사회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90년대 보다 2000년대 오면서 패션 테마가 더욱 세분화되고 있고 특히 상반된 테마가 서로 공존하는 특성이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현대 문화의 다양화, 다원화와 현상과 밀접한 관계성을 갖고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패션 색채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색상은 YR(17%), Y(14%), R(13%), PB(1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색상 별 년도에 따른 변화를 비교해 보면 YR, R계열의 색상은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Y색상의 경우 90년대 후반 다소 감소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추럴 스타일과 새로운 세기의 시작과 함께 패션 트렌드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테크노 스타일의 골드 이미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채색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G, BG색상의 경우 애콜로지, 로하스 등의 친환경적 트렌드와 함께 그 비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

다. 색조를 분석해 본 결과 m(16%)>d(12%)>gy(11%)>s(10%)>l(9%)의 빈도로 나타났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p 색조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1990년대에 비해 gy, dp, d.Gy, vp계열의 색조 등 저채도의 다양한 명도의 색채가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패션 스타일 중 모던, 엘레강스 스타일의 지속적인 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00, 2001년 증가되었던 v색조는 그 당시 증가되었던 편 스타일 트렌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 동안의 패션 소재를 분석해 본 결과 엘레강스(19%)>모던, 내추럴(14%)>클래식(8%) 이미지 소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던한 소재는 2001, 2003년 감소를 제외하고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나타났다. 엘레강스 소재는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모던, 내추럴 소재와 더불어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난 트렌드 소재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의 소재 트렌드의 움직임을 비교해 보면 90년대 후반에는 엘레강스, 모던 이미지의 비중이 매우 커져나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99년부터 내추럴 소재, 캐주얼 소재 등이 증가하여 다양한 소재 감성이 공존해가는 특성을 보여준다. 2000년대 소재 트렌드는 내추럴 소재, 모던 소재가 지속적으로 증가, 엘레강스, 테크니컬 소재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테크니컬 소재의 경우 기능적 특성을 내추럴 소재 안으로 숨겨 외관 이미지에는 테크니컬 한 특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디자인 트렌드의 영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중반으로 가면서 다양한 소재 트렌드가 공존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패션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20세기 이후 나타나는 다양한 이미지의 공존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재와 스타일 감성 이미지의 유사성을 보면 90년대 중반에서 2001년 까지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2003년 이후 많은 차이를 보여 내추럴, 레트로, 매니쉬, 편의 감성은 소재를 중심으로 강조되고 로맨틱과 클래식 감성은 스타일을 중심으로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재와 스타일의 트렌드 정보가 불균형을 이룸으로써 효과적인 감성 이미지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재에 비하여 스타일의 변화 주기가 더욱 짧아지고 감성에 따른 세분화의 정도가 갈 수록 커지고 다양화되는 현상으로, 소재 트렌드 정보의 경우 스타일 트렌드와 같은 패션 감성에 따른 주제 세분화 및 차별적 감성 분류 및 세분화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의 패션 트렌드를 요소별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패션 트렌드의 사이클과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국내 패션 트렌드를 예측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된 패션 트렌드 자료는 패션 트렌드 정보사가 제안한 패션정보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실제 패션업체들이 브랜드 특성에 맞도록 가공한 상품기획 내용 및 판매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본 연구의 패션 트렌드 분석 결과만을 가지고 그 해 패션 트렌드를 규정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음을 밝힌다.

## 참고문헌

- 1) 김소영, 양희영 (2006). 문화 코드의 변화에 따른 패션 트렌드 경향 연구 2005년 패션 트렌드를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 56(2), pp. 134-146.
- 2) 금기숙, 남재경 (2001). 1990년대 패션트렌드 분석연구 여성패션의 테마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9), pp. 1645-1654.
- 3) 김숙현 (2001).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스포티브 패션 트렌드의 수용 현황과 배경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윤경, 이경희 (2004).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남성패션 스타일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9(2), pp. 270-279.
- 5) 김찬주 (2003). 세계 패션선도 도시들의 남성 스트리트 패션 연구 유행분류와 스타일 특성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 27(3/4), pp. 298-309.
- 6) 패션큰사전 편찬위원회 (1999). *Fashion Dictionary*. 교문사.
- 7) 금기숙, 남재경 (2001). 앞의 책. pp. 1645-1654.
- 8) 노경혜, 이경희 (2002). 소비자 착장 스타일에 나타난 패션 트렌드 수용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5), pp. 465-472.
- 9) 김윤경, 이경희 (2004). 앞의 책. pp. 270-279.
- 10) 김소영, 양희영 (2006). 앞의 책. pp. 134-146.
- 11) 나영주, 권오경 (2000). 여성복 텍스타일 디자인의 특성과 감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3),

- pp. 198-204.
- 12) 김영인, 조민정 (2000). 국내 패션업계에서 활용하는 복종별 색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지*, 14 (1), pp. 9-19.
  - 13) 조현승, 이주현 (2005). 소비자 감성에 기반한 텍스타일디자인 예측시스템 개발 효율적인 텍스타일디자인 방법 제안.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2), pp. 187-195.
  - 14) 이윤숙, 신정원, 안미영, 김은애 (2001). 의류소재의 구조적 특성이 감각특성 및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8), pp. 1408-1419.
  - 15) 고수경, 유신정, 김은애 (2003). 의류소재의 물성이 이미지 및 감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DB구축 방 모 직물의 구조 특성에 따른 질감 이미지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7(5), pp. 533-544.
  - 16) 인터패션플래닝 (2000~2005). *General Fashion Trend Book*.
  - 17) 삼성디자인넷 (2001~2005). *Women's Fashion Trend*.
  - 18) 제텍스(XETEX)가 제안한 TREND. 섬유저널 (1995. 2)
  - 19) Fabric forecast 인터패션플래닝- '97/8 F/W 패션 에 크노피아. 섬유저널 (1996. 9)
  - 20) Fashion Forecasting- '98 S/S Trend Sunkyung Industries Trend. 섬유저널 (1997.4).
  - 21) Fashion Forecasting '98/99 F/W 선경인더스트리 트 렌드ambi-balance & ambi emotion. 섬유저널 (1997. 11).
  - 22) Fashion Forecasting '99 S/S Color Trend, 섬유저널 (1998.5)
  - 23) '97 S/S General Trend. 패션 코리아 (1996).
  - 24) '99/00 F/W General Trend, 패션섬유경제신문 (1998).